

# 독일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설의 교훈

부제 : 이성과 감성의 이중주

2014130069 국어국문학과

박찬희

## 1) 계몽주의의 유래

계몽주의는 17-18세기 유럽을 장악했던 사상적 개혁운동으로,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존의 미신과 종교적 관습 등을 타개하고 근대적 가치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을 받았던 독일의 경우, 철학자 칸트를 필두로 이성중심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독일어로 계몽을 뜻하는 단어 Aufklärung은 ‘열어서 명확하게 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지금까지 종교와 미신들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왔기 때문에 정신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고, 관찰자이자 주체인 인간이 이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경설의 이야기 속 객(客)의 믿음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거울의 합목적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울의 본디 쓰임은 비친 대상을 가림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데에 있다. 이때 선명하다는 것의 의미는 보는 사람의 기분이 좋게끔 상을 일그러뜨리거나, 오늘날의 용어로 ‘보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울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파악하게끔 해준다는 데에 있다. 이때의 대상은 거울을 보는 사람 자신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거울이 깨지거나 녹이 덮였다는 것은 거울이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거울의 흠결은 인간의 판단에 방해물이 된다. 경설(鏡說) 속 객이 의아해하는 것도 이와 같은 까닭이다. 인간이 거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선명한 얼굴이든, 혹은 그 속에 어린 고요함과 같은 정신적 가치이든, 이때의 거울은 ‘맑음’이라는 특징으로서 인간의 주체적 사고와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다. 도구는 그에 걸맞은 목적성을 지니며, 이에 가장 잘 부합할 때 우리는 그 도구를 ‘유용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작중 화자는 유용하지 않은 거울을 놓고, 외려 그 ‘맑지 못함’, 즉 어두움을 취하려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명백한 모순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거울의 합목적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규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걸까?

## 3) 계몽주의의 반향

계몽주의가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이고 이치에 부합한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이는 그 정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구와 천체가 움직이는 방식이나 사물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계몽주의, 달리말해 이성중심주의는 사태를 관찰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정답, 진리가 있다고 여기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틀렸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판단 주체, 다름 아닌 인간은 확고부동한 판단 기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존재이다. 이성중심주의는 수십 년간 인간의 뇌를 분석하였으나, 왜 인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지, 혹은 그들이 단지 정교한 기계의 작동방식을 지녔다고 믿는 뇌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과 내면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이다.

낭만주의는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과 혼란, 밝혀지지 않는 어두운 것, 꿈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낭만주의를 모티브로 하는 문학에는 죽음, 밤, 꿈, 정신착란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다. 계몽주의가 밝힘이라면, 낭만주의는 덮음이다.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그림에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빛을 널리 퍼뜨리고 있지만<sup>1)</sup>, 낭만주의 그림 속에선 한 사내가 경계 없는 안개 너머를 응시하고 있다<sup>2)</sup>. 이처럼 빛과 어둠에 상응하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은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얼굴, 즉 이성과 감성의 필연적인 대립에 상응한다.

#### 4) 작품 분석

지금까지 이성과 감정, 밝힘과 감춤, 명확함과 희미함의 이분법적 대립을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립이 경설 속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경설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객은 거울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는 것을 지적하며, 왜 닦아내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의 이러한 물음 속에는 그것이 이치(里)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2) 작중 화자는 그러한 뿌연 상태를 외려 고수하며, 거울의 맑음을 요구하는 객의 주장을 반박한다.

만약 도식적으로 1)에서 객이 계몽주의적 관점을 지녔다고 본다면, 2)의 화자는 낭만주의자라고 칭해야 마땅할 것이다.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든 예시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 화자는 거울이 비추는 내용이 거울의 선명함과 관계없이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거울의 합목적성, 즉 이치를 논하고 있는 객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서 사물에는 그에 걸맞은 단 하나의 용도만이 존재한다는 객의 관점을 반박하고 싶었던 듯하다. 또한 선현들이 추구하는 바와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을 통해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다.

#### 5) 총론

앞서 살펴보았던 이성과 감정, 분명함과 뚜렷하지 않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존재한다. 이는 인간 본성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개인의 감정과 감흥 등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경설 속 화자와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간의 내면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1) [Toleranz], Daniel Chodowiecki, 1791

2) [Der Wanderer über dem Nebelmeer], Caspar David Friedrich, 1818